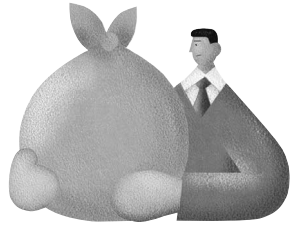


# 3만원으로 어려운가정에 따뜻한 떡국상을 차려줍시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바쁜 생활에 쫓겨 평소에는 잊고 살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설날이 다가와도 떡국 한 그릇을 끓일 여유가 없는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사) '사랑의 친구들' 은 푸근하고 정겨워야 할 명절이 더 춥고 쓸쓸히 느껴지는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 가장, 몸이 불편한 분들의 가정을 찾아가 떡국거리를 전달하는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를 올해에도 계획하고 함께 하실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떡국거리 마련을 위한 성금은 한 바구니분 (1구좌)이 3만원으로, 원하시는 경우 후원하는 단체나 개인의 이름으로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떡국 바구니는 각박한 나날을 살아가는 이웃에 새해의 희망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후원금은 연말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 사랑의 떡국 나누기란?

떡국거리(가래떡, 쇠고기, 멸치 등)를 담은 바구니를 마련하여 명절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 전달함으로써 설날이처럼 따뜻한 떡국을 먹을 수 있게 하는 행사입니다.

### 행사목표

'사랑의 떡국 나누기 준비위원회' 는 3만원짜리 구좌 총 2천 3백개를 모아 다가오는 설날 즈음한 2006년 1월 25일에 2천 3백가정을 방문하여 떡국 바구니를 전달합니다.

### 행사준비

떡국 바구니를 꼭 필요로 하는 가정과 구좌를 기부할 분을 찾습니다.

- 받는 가정 : 소년·소녀가장, 홀로노인, 장애우, 병약자 가정 중에서 정부기관,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참여 방법: 떡국 바구니를 제공할 뜻이 있는 분은 1바구니분 3만원을 1구좌로 하여 희망하는 액수를 지원하면 됩니다.
- 2006년 1월 25일 모아진 성금으로 준비한 떡국 바구니를 지원이 확정된 가정에 전달합니다.
- 떡국 바구니 포장 및 전달은 '사랑의 친구들' 의 자원봉사자들이 합니다. 배달봉사에 뜻이 있는 분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 모금 참여 방법

- 뜻이 있는 분은 국민은행 구좌번호 070-25-0040-131 예금주 (사) '사랑의 친구들' 에 송금하시면 됩니다.
- 송금하신 후에는 (사) '사랑의 친구들' 전화(02-734-4945~7)로 연락주십시오.
- 후원금은 연말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행인 : 김성수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483

Tel : (02)734-4945-7  
Fax : (02)734-4948  
E-mail : folove831@korea.com  
Homepage : www.friends.or.kr

# 사랑의 친구들

Friends of Love

2005년 12월 / 통권 제 22 호



## 차도(茶道)로부터 배우는 나눔의 정신

김 의 정 ('사랑의 친구들' 이사,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차도를 공부하다 보면 그 안에 인간사의 정치·경제·사회·문화·사상,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음에 놀라게 된다. 그만큼 차는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식품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아편전쟁, 미국의 독립전쟁은 물론 한국의 임진왜란도 어떤 의미에서는 차 문화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중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2천 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전통 차 문화의 정신이다.

한국의 전통 차도(茶道)는 예를 갖추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과 나누는 정신을 담고 있다.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고 부모와 조상을 받드는 효(孝)의 정신, 더 큰 것을 위하여 자기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또 차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일본이 임진왜란 때 도자기를 굽던 다수의 한국 도공들을 납치해 가서 굽게 한 그릇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일본의 차도(茶道)는 그릇이나 마시는 법 등을 고도의 형식주의로 스타일화 했다.

그 역사는 불과 5, 6백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의 차도는 2천 여년 전 고구려, 신라 시대로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 강점 이후 우리의 차 문화는 스러져가기 시작했고, 조상께 제사를 지낼 때도 전통적으로는 차를 썼으나 술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해방 이후는 반대로 우리나라에 일본식 차도가 들어와 그를 보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궁에서만 겨

우 연명하던 한국 전통의 차도는 조선조의 마지막 상궁 2명에 의해 전수되었고, 명원 김미희 선생이 이를 배워 오늘에 전해진다.

오늘날 차도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갖고 있다. 빠르게 차도를 산업화와 결부시킨 일본은 다구(茶具)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도예지 아리타에서 만들어 지는 다구만으로도 연간 수억엔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그밖에 유형, 무형의 차와 관련된 산업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차문화를 통해 일본은 21세기 세계적인 붐을 일으킨, 정신문화의 화두가 된 선(禪) 등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진 문화민족으로 추앙받으며 경제적인 이득도 챙기는 일석 삼, 사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더욱 우수한 차 문화의 전통을 가졌으니만 치 그를 더욱 널리 보급하여 그 정신을 오늘에 살리고 나아가 외국으로도 수출하여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게 하자고 나는 제안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 전통사상의 하나인 나눔의 정신의 활성화이다. 흔히 오늘날 어려운 이웃과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는 자선(慈善)은 미국 등 서양의 기독교의 박애정신에 근거한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미 수천년 전부터 우리의 전통의식에는 '열 사람이 밥 한 숟가락씩 모아주면 한 그릇의 밥이 된다'는 의미의 십시일반(十匙一飯) 등의 생각이 서민간에도 일상화 했다. 그 나눔정신을 되살리자. (\*)



# 학교, 유치원, 병원에 꼭 필요한 물품 지원으로 북한 어린이 도와 다섯번째 북한 지원, 7억 6천여 만원의 물품 지원

(사) '사랑의 친구들'은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여성들의 모임 '나라사랑어머니회' (총회장 송인숙)와 함께 북한 어린이를 위한 제5차 지원을 2005년 9월, 실시했다. 7월에 개성에서 실무자 접촉을 가진 후 9월 10일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보낸 물품은 학용품, 가전제품, 음향설비, 의류, 식품, 의약품 등 약 7억6천만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 물품들의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 '사랑의 친구들' 김순자, 성인숙 이사, 노운화 차장과 '나라사랑어머니회'의 방숙자 이사장, 송인숙 총회장(뉴욕), 김숙자 동부지역 회장(워싱턴), 서진화 중부회장(시카고), 서울의 박희양 한국지부 회원 총 8명이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평양 등 북한을 다녀왔다.

지원 물품들은 북녘 어린이들의 교육 및 치료를 위해 각급 학교와 유치원 그리고 병원으로 보내졌다. 김성숙 탁아소, 창광 유치원, 평양 1중학교, 직십자 종합병원, 녀성회관, 평양 음악대학 소학



물품을 기증한 창광 유치원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반, 삼지연 학생소년궁전, 보건성 중앙 의약품 관리소 등이라고 복측은 밝혔다.

이번이 첫 번째 방북인 미국 나라사랑 어머니회의 송인숙 총회장은 북에서 가장 큰 병원이라는 평양산원을 방문했는데, 기본적인 의료기기인 CT스캔도 없더라며 시설 부족의 병원 현황을 느꼈다고 했다.

박희양씨는 방북 기간 중 북쪽 민족화해협의회 간부가 올해 풍년이었는데, 남쪽에서 비료를 보내줬고 날씨가 좋았고 인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였다고 말하는 것이 기억에 남더라고 했다. 노운화 차장은 거리나 건물에 사람 이름을 붙인 곳이 많고, 붉은 글씨로 구호를 써 붙인 것이 많은 것이 눈에 두드러지더라고 했다.

이번 북한 어린이 용품 지원에는 식품회사, 의약 회사, 가전회사, 약기회사 등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11쪽 참조)

# 한겨울 추위 녹인 따뜻한 '2005 Mr. Pizza 사랑의 피자파티' 마술! 피자! 어린이들은 즐겁다!

(사) '사랑의 친구들'과 'Mr. Pizza'가 함께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Mr. Big Brother'가 12월을 끝으로 1년간의 사업을 마감했다. Mr. Pizza는 지난 12월 20일 호창운동장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올해의 사업을 총정리하는 '2005 Mr. Pizza 사랑의 피자파티'를 열었다.

'사랑의 피자파티'에는 올 한해 지원받은 공부방 어린이와 교사 108명이 초대됐다. 이날 피자 파티에서는 장학금을 지원받은 아동중에 가정형편이 특히 어려운 3명을 선정해 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장학증서 수여도 있었다.

한해 동안 배달된 피자 5,778판을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해 눈길을 끈 이날 행사에서 Mr. Pizza 황문구 사장은 "오늘 파티는 Mr. Pizza 본사 전직원이 어린이들과 함께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자는 뜻을 정하고 연말 송년파티 비용을 모아 스스로 마련한 자리여서 더 의미가 깊다"고 인사했다. 또 내년에는 더욱 알찬 'Mr. Big Brother'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함께 게임하며 직접 피자도 만들고 맛있게 먹기도 하는 어린이들.



이날 파티는 어린이들과 공부방 교사, Mr. Pizza 직원들이 각기 조를 이뤄 흥겨운 게임과 환상적인 도우 매직쇼, 직접 피자 만들기를 했다. 이어 신비롭고 유쾌한 마술공연으로 이어져 파티에 참석한 어린이들은 게임과 쇼를 함께 즐기며 Mr. Pizza에서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한아름 받게 돼 즐거운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었다.

'Mr. Big Brother' 사업은 전국의 Mr. Pizza 대리점에서 배달이 가능한 공부방에 격월 또는

분기별로 피자를 배달하고 배달이 불가능한 곳은 쿠폰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선정된 지점에 직접 가거나 가져와서 먹을 수 있게 한 사랑 나누기 사업이다.

이외에도 총 14회에 걸쳐 Mr. Pizza 매장에 공부방 어린이들을 직접 초청해 모두 269개 공부방의 어린이들이 피자를 맘껏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피자 1판당 매장에서 15원, 본사에서 15원씩 30원을 적립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 100명을 선정해 매월 5만원의 장학금을 1년간 지원해 왔다.

박희경 ('사랑의 친구들' 기획 홍보부장)



# 나눔과 더함의 풍성한 가을 한마당

10월 8일, 9일 류관순 기념관에서 열려



1. 지방특산물 코너의 자원봉사자들  
 2. 성우 송도순씨가 진행한 경매에 홍보대사 김혜수 씨가 참여했다.  
 3. 미국에서 사랑의 바자를 위해 한국에 온 '나라사랑어머니회' 회원들

'사랑 나누기 바자 한마당' 이 지난 10월 8일과 9일에 걸쳐 이화여고 류관순 기념관 앞뜰에서 열렸다.

올해로 8번째로 열린 '사랑 나누기 바자'는 김혜수, 김범수 홍보대사의 참여로 특별한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바자는 12만명에 이르는 빈곤아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여성경제인협회, 미국나라사랑어머니회, '사랑의 친구들' 후원회의 후원으로 열렸다.

나라사랑어머니회, 지역특산물, 주한 외국대사관 등 이색적 코너 선보여

이번 바자에는 최상품의 지방특산물이 나와 눈길을

을 끌었고 오은환, 최연옥 등 청담동 일급 디자이너들의 코너도 인파로 붐볐다.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주한 외국 대사관의 참여도 한몫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들의 모임인 '나라사랑 어머니회' (총회장 송인숙)는 본부와 홍콩, 일본 지부가 각 지역의 특산품을 가져오는 등 이색적인 코너를 마련하여 관심을 모았다.

지방 특산물로는 고창 땅콩과 횡성 한우, 신안 천일염 등도 인기를 끌었다.

홍보대사 김혜수, 김범수씨, 명사들의 기증품 경매도 3천원으로 구입하면 당첨기회가 생기는 행운권의 경품으로 나온 외환은행의 100만원권 예금증서와



어린이나라 참여 공부방 선생님들의 감사 편지

### 행복한 아이들의 즐거운 스케치

안녕하세요!!  
 문산 초록빛꿈터에서 인사드립니다!  
 풍성한 가을!  
 푸른 하늘을 병풍삼아 멋진 축제 행사에 여러 공부방 아이들과 초록빛꿈터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홈페이지에 아이들의 감동과 감사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초록빛꿈터친구들에게 이 풍성한 가을에 마음 속에 즐겁고 행복한 스케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록빛꿈터공부방 김혜숙 (교사)

###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어린이나라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날씨때문에 염려스러웠는데 다행히도 날씨가 좋아서 아이들이 좋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참으로 좋았습니다. 좋은 선물도 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해주셔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역시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뛰노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함께 동심의 세계에서 거닐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TV에서만 보는 청계천을 아이들에게 보여줬구요.  
 내친김에 아이들에게 청와대도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정말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사랑의 친구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전하리공부방 정재원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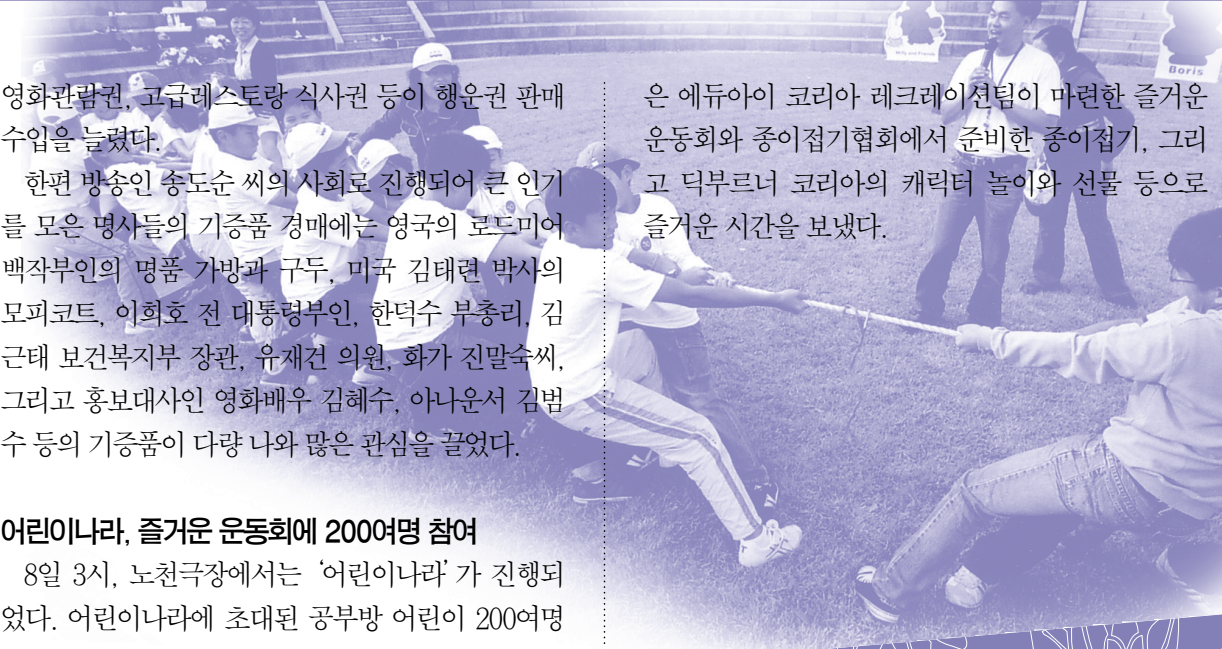
영화관람권, 고급레스토랑 식사권 등이 행운권 판매 수입을 늘렸다.

한편 방송인 송도순 씨의 사회로 진행되어 큰 인기를 모은 명사들의 기증품 경매에는 영국의 로드미어 백작부인의 명품 가방과 구두, 미국 김태련 박사의 모피코트, 이회호 전 대통령부인, 한덕수 부총리,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유재건 의원, 화가 진말숙씨, 그리고 홍보대사인 영화배우 김혜수, 아나운서 김범수 등의 기증품이 다량 나와 많은 관심을 끌었다.

### 어린이나라, 즐거운 운동회에 200여명 참여

8일 3시, 노천극장에서는 '어린이나라'가 진행되었다. 어린이나라에 초대된 공부방 어린이 200여명

은 에듀아이 코리아 레크레이션팀이 마련한 즐거운 운동회와 종이접기협회에서 준비한 종이접기, 그리고 덕부르너 코리아의 캐릭터 놀이와 선물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 '사랑의 친구들'  
사랑 나누기 바자 한마당 수입내역  
2005년 11월 30일 현재

내역	금액(원)	비고
기업협찬 물품 판매금	97,367,100	약 100여개사 참여
코끼리장터 판매금 (기증품)	12,263,850	약 400여점 접수
팔도특산물 판매금	3,415,000	
미주특산물 판매금	71,270,653	
외국인 베이킹코너 판매금	2,322,000	
먹거리 판매금	6,267,400	
행운권 판매금	13,553,000	약 4,122매 판매
성 금	15,510,000	36명(개인,단체,기업)
행사 준비비 협찬금	1,000,000	
총 계	222,969,003	



이희호 고문이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 '2005 빈곤아동돕기 사랑의 바자한마당' 참여 업체(감사합니다!)

#### ■ 의류업체

설운형, 오온환, (주)리얼컴퍼니, (주)마담포라, (주)사라(앙스모드)  
(주)성주인터내셔널, (주)슈퍼리어, (주)에스까다코리아  
(주)크리스퍼션(PING), 케이와이제이패션, 한성FNC, 최연욱  
Macy's 서울지점, (주)CJ홈쇼핑, 정희직물, (주)신성F&C,

#### ■ 잡화

3M Korea, 금호전기(주), 제이유네트웍(주), (주)한영강기루  
(주)화이버텍, (주)효성, 웅진, 반도환경개발(주), (주)까메인터내셔널  
흥진, 황실유림자수, (유)성일토건, 비단향꽃무, 앤들핀코스메틱,  
외환은행, 3·1여성동지회, (주)까사미아, (주)우현T&S, 코즈니,  
한국UCD, (주)부영, 대림산업(주), 애경산업(주)

#### ■ 어린이용품

(사)한국중아접기협회, (사)새세대영역회, 릴츠, 디부르너코리아(주)

#### ■ 화장품, 약세사리

(주)코리아나, (주)클리오, 한국KOLMA, ESTEE LAUDER  
우연엠에스(주), 보우실업

#### ■ 주방용품, 가전제품

(주)서화, 우먼타임스(주), 서울향료(주), 브이케이(주)

#### ■ 식품

아영FBC, 송학식품, 대신제분(주), 삼양사, (주)홍주미트, (주)빙그레  
홍성리청매실농원, (주)비타민뱅크, CJ, 동아제약, 고창고인돌북분자  
삼진GDF, 선표식품(주), 농협창동하나로, (주)한국클로렐라, 삼미식품  
(주)티젠, (주)한보제약, 새순영농조합법인, 모악산주조, 보양해조(주)

#### ■ 기타

신라구두, 한맘니트, 타임스퀘어, 소야코리아, 신성통상, 바이메르  
세무실업, 한창상역, Grace, 순창고추장, House Recipe Tea Cake  
신나는조합 한반도재단 여성위원회, (주)미래코스팜  
이중리메이크업아카데미, 한국여성재단, 미용사협회중앙회  
명원문화재단, 이색회, Oakwood Premier Coex Center  
송파생활문화협회, 김근태, 김순자, 김연주, 김영자, 김원기, 김범수  
김행원, 김혜수, 노영혜, 박현숙, 방숙자, 손소연, 유재건, 윤정순, 이인호  
이재용, 이희호, 리처드전, 진말숙, 추애주, 한덕수, 레이디로드미어

#### ■ 대사관

뉴질랜드대사관, 인도네시아대사관, U.A.E 대사관

#### ■ 팔도특산물, 먹거리

아태여성아카데미, 바돌기회, 우리가족, 한미음식사회, 5.17가족

#### ■ 행운권, 경품

아시아나항공, Pacific Islands Club Korea, 한국고속해운, (주)세방여행  
진태국, 길병원, (주)URG, JW Marriott Seoul, 코모도호텔, (주)사리리  
Seoul Plaza Hotel, 공리, 달기비, 지하, 여성신문사, (주)다운타운레포츠  
메가박스 세네플러스, 건강나라

#### ■ 후원금

이선우, 한전부녀회, 우리가족, 심치선, 권양숙, 최순자, 삼성복지재단  
Jeffrey D. Jones, 한국은행, 대구중앙청과(주)  
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

## 자연과 함께 한 행복한 시간

지난 10월 12~14일 양평 산음휴양림에서 열려  
'사랑의 친구들', 한국 녹색문화재단이 주관



### 제가 심은 애기자란초 잘 자라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정지하철공부방에 다니는  
5학년 김유나입니다.  
저희 공부방에서 나눔의 숲을 갔다 왔었는데요  
나눔의 숲에 갈려고 산길을 지나갔을 때 너무 아찔했어요.  
떨어 질까봐 무서웠죠, 그리고 밥이 꿀맛이었어요.  
할머니, 아주머니들께서 만든 음식이  
제가 먹은 음식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숲체험을 했었을 때에 여러가지의 체험과  
나무이름, 식물이름과 쓰이는 곳, 내용 등을 알아서 좋았고요.  
풍물놀이를 할 때 사물(장구, 징, 북, 팽과리)들이 모자라서  
페트병과, 소고로 했어요. 저는 팽과리를 하고 싶었는데  
'가위바위보' 에서 지는 바람에 페트병으로 풍물놀이를 해서  
아쉬웠어요.  
다음날 화분에 '애기자란초'를 심고요, 하얀 티셔츠에다가 나  
뭇잎을 구해서 나뭇잎에다가 물감을 칠해서 찍었어요.  
저는 예쁜 꽃을 만들었어요. 너무 재밌었죠~  
그런데 이제 떠나려니 아쉬웠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가고 싶어요.

은정지하철 공부방 김유나

'사랑의 친구들'은 지난 5월에 이어 한국 녹색문  
화재단과 함께 공부방 어린이들을 위한 '나눔의 숲  
체험 교실'을 열었다.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2회  
에 걸쳐 양평 산음휴양림에서 안양, 군포지역의 한  
무리, 기쁨, 서울지역의 은정지하철, 과량새 공부방  
어린이 71명이 함께 했다.

일상을 떠나 맑고 푸르른 자연과 함께한 풍물, 숲  
속 활동,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국녹색문화재단의 담  
당자들 외에도 5명의 전문 숲 해설가 선생님들의 지

도 아래 풍요로운 자연의 재료들을 이용한 티셔츠  
만들기, 화분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다. 또  
다섯 그룹으로 나뉘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한 숲  
탐험은 숲의 신비함과 고마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여기에 풍물패 선생님들과 함께 한 신  
명나는 풍물놀이, 어린이들의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성을 다해 주었다. 내년에도 보다 많은 공부방 어  
린이들이 우리의 숲을 함께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 크고 작은 나눔을 지켜보는 행복

김 경 희 (한국유니세프한국위원회)

지난 8월, 몽골의 올란바토르 외곽의 나이람달 캠프촌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흘렀다. 철석을 앞두고 아주 가까워진 견우와 직녀, 북두칠성, 백조자리 별들은 또 얼마나 선명했던지. 문득 타오르다 칠혹같은 어둠 속으로 이내 사라지는 별뿔별들. 별들 사이를 미끄러지듯 스치는 인공위성들. 목이 아파 견딜 수 없을 때까지 황홀한 우주쇼를 훑린 듯 지켜보았다.

과분한 축복이었고 특히 몽골 출장을 앞두고 지레 긴장했던 데 비하면 엄청난 황제였다.

“저밖에 모르는 공주님과 왕자님을 70여 명이나 인솔한다고? 일찌감치 마을을 비우고 지옥훈련 하느 셈 쳐.”

몽골로 캠프를 떠난다니까 현직교사인 친구는 잘라 말했다. 부모들이 어이없이 망쳐놓은 아이들을 바라볼수록 우리네 앞날이 캄캄하게 느껴질 거라는 경고. 애어른이 돼버린 아이들을 끝간 데 없이 몰아세우는 부모들의 기대에는 ‘더불어 살기’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절대로 없다고 했다.

“그런 아이들에게 무슨 공동체意識, 봉사정신, 세계 시민교육?” 아이들에 대한 열의가 남다른 친구의 말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보람보다 후회가 더 크면 어쩌나...

그러나 지난 여름의 별탈 없이 지나간 8박 9일의 캠프를 돌이켜보니 가슴 환하게 밝혀준 일들이 술하다. 은하수 흐르는 밤하늘에서 유난히 눈길 끌던 별자리들처럼 아름다운 사람들.

식사당번을 자청하며 농장의 풀뽑기와 그늘막 만드는 일에도 앞장서며 고아원 아이들과 어울려 놀던 싱가포르 여성은 잊을 수가 없다. 그는 한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20대 젊은

이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신바람 자원봉사자이다. 해마다 한두차례씩 휴가를 내서 이런 현장에 뛰어든다는 그의 행복한 표정에서 50대의 나이를 짐작하기란 힘든 일이었다.

영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다니엘은 자신이 평생도록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할 겸 몽골 오지에서 건강교육을 하다 우리 캠프에 합류했다. “그저 돈 잘 버는 의사로 살기보다는 나를 더 필요로 하는 제3세계 무의촌에서 진료나 보건사업을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는 여행만 하는 휴가보다는 아이들과 벗하며 봉사하는 것이 한결 기쁘고 보람있다고 기꺼이 아이들 주변을 맴돌던 미스터 싱글벙글.

아이들이 직접 참여했던 고아원 당근농장 풀뽑기나 캠프 프로그램 뿐 아니라 싱가포르 여성이나 다니엘이 기쁘게 봉사하는 모습에서 참으로 많은 걸 배우고 느끼지 않았을까?

‘진정한 기쁨은 나눌 수 있는 마음과 능력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어렵잖이나마 깨달았다면 이번 캠프는 무조건 대성공이다.

크고 작은 나눔들을 지켜보는 행복감이 몽골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내 마음에 흐른 여름. 겨울엔 더 많은 ‘나눔별’ 들을 헤아리고 싶다.

유난히 빛나는 일등성은 아닐지라도 수많은 작은 별들이 나눔의 기쁨으로 반짝이는 별이 많은 겨울밤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

## 옥탑방에서 만난 우리 이웃들

에스더 기도선교회

곽 선 례 (에스더 기도선교회 명예회장)

올해도 벌써 12월, 마지막 달력 한 장만 남았다. 해가 저무는 이 때가 되면 누구에게나 나뉠의 아쉬움과 회한이 있듯이 나에게도 뚜렷하게 떠오르는 가슴쓰린 영상이 있다.

‘사랑의 친구들’과 처음으로 설날맞이 불우이웃 돕기 봉사 현장에 나가 목격한 우리 이웃의 가난의 현장, 슬픔의 현장, 고통의 현장, 소외의 현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 현장의 모습이 마지막 12월 달력에 오버랩되면서 금년 한해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 이웃을 외면하고 살아 온 것이 아닌지 반성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된다.

‘사랑의 친구들’의 설날맞이 불우이웃돕기 행사는 해마다 12월에 설날 떡국바구니 만들기로부터 시작된다. 에스더 기도선교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 행사에 참여한 나는 이들의 정성어린 떡국바구니 만들기를 보면서 이웃돕기 행사라기보다는 가족끼리의 일인 듯 정겹고 예뻐보이기까지 하였다.

가래떡과 쇠고기, 소시지, 김에 이르기까지 넉넉하게 담은 손길이 따뜻했고 새해를 축하하는 카드와 함께 예쁜 보자기로 포장하면서 우리들의 정성까지 담고 있다고 늘 감동하며 일해 왔었다.

떡국바구니 선물은 당연히 가장 열악하고 굶주리면서도 도움 받지 못한 소외된 이웃을 최우선의 대상으로 하였다. ‘사랑의 친구들’과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말로만 듣던 옥탑방이라는 곳이었다.

3층 옥탑방으로 이어진 계단은 허술하고 급경사여서 숨이 찼다. 쪽문을 열고 어둡고 좁은 방으로 들어서서 순간 ‘헉’하고 숨이 막혔다. 두발 모두가 관절염으로 불구상태인 할머니가 사람이 들어서서 기척도 모른 채 누워 있었다. 할머니는 몸뚱이 아니라 정



국회 기도실에서 정기예배를 마친 에스더 기도선교회 임원들.

신도 불구인 듯 떡국바구니를 받으면서도 고맙다는 인사마저 잊고 있었다. 거동조차 못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설날 떡국을 끓여 먹을지 가슴이 저려 가파른 계단을 내려오면서 다리가 휘청거렸다.

‘사랑의 친구들’을 돕고 있는 에스더 기도회는 1997년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한 초교파 여성들의 기도회로 발족하였다. 그러나 ‘사랑의 친구들’의 이웃돕기 사업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다 절실하고 긴급한 과제가 바로 가까이 있는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보살피는 일이라는 것을 절감했다. 그래서 당초의 명칭인 에스더 기도회에 선교회라는 이름을 덧붙여 에스더 기도선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여성 기독교인들이 시급히 해야 할 또 하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일깨워 준 것이다.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선교하고 복음화를 이룬다는 에스더 기도선교회 회원들의 강한 의지와 정성이 여기에 모아지고 있다. ‘사랑의 친구들’의 이웃돕기 행사가 에스더 기도선교회의 지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참여자들의 협력으로 가난과 슬픔의 고통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밝은 웃음을 선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한다. (\*)



# 2005. 9. 12 ~ 11. 25 (사) '사랑의 친구들' 활동

## 〈운영위원회〉

- 9. 29 제78차 운영위원회
- 10. 27 제79차 운영위원회

## 〈기획자문위원회〉

- 9. 20 제41차 기획자문위원회
- 11. 14 제42차 기획자문위원회

## 〈사랑의 간식나누기 9기〉

대한항공, 아시아나, 엘에스지 스키이 세프코리아(주) 제공  
11차(9.13), 12차(9.20), 13차(9.27), 14차(10.4), 15차(10.11), 16차(10.18), 17차(10.25), 18차(11.1), 19차(11.8), 20차(11.15), 21차(11.22)

## 〈사랑의 간식나누기 10기〉

- 11. 18 신청 안내문 홈페이지 공지
- 11. 24 총 116개 기관 접수

## 〈Mr. Pizza와 함께 하는 'Mr. Big Brother'〉



Mr. Pizza 황문구 사장으로 부터 어린이가 장학증서를 받고있다.

'사랑의 친구들' 과 Mr. Pizza가 함께 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Big Brother' 가 11월 30일로 모두 종결됐다.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거리로 뽑힌 피자보내기 운동은 지난 1년 동안 Mr. Pizza에서 전국 369개 공부방에 피자를 배달했고 형편이 어려운 100명의 어린이를 선정해 매달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Mr. Pizza에서 후원한 장학금은 피자 1판당 매장에서 15원, Mr. Pizza 본사에서 15원씩 총 30원을 적립한 예산으로 조성되었다.

- 9. 15 매장초청행사 : 아이사랑학교 햇살교실 (창동점)
- 9. 26 매장초청행사 : 열린공부방 (발산점)
- 9. 28 아동후원금(9월분) 총 100명에게 500만원 송금
- 10. 25 매장초청행사 : 밤골아이네 (창동점)
- 10. 26 매장초청행사 : 신나는신나는집 (센트럴점)
- 10. 27 아동후원금(10월분) 총 100명에게 500만원 송금
- 11. 28 아동후원금(11월분) 총 100명에게 500만원 송금
- 매장초청행사 : 삼산지역아동센터 (창동점)
- 11. 29 매장초청행사 : 성모의집 공부방 (영동2호점)
- 11. 29~30 사업 종료 공지

## 〈녹색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나눔의 숲 체험교실〉



숲 해설을 듣고 있는 공부방 아이들.

- 10. 12~14 장소 - 양평 산음휴양림
- 참여기관 - 기쁨공부방, 한무리공부방(인양, 군포)/파랑새공부방, 은정지하철공부방(서울)
- 참여인원 - 총 79명(어린이 68명, 교사 9명)

## 〈2005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바자한마당〉

- 9. 21 4차 준비위원회
- 9. 28 5차 준비위원회
- 10. 5 6차 준비위원회
- 10. 8~9 2005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바자한마당 개최
- 장소 - 이화여고 류관순 기념관 및 앞뜰
- 10. 10 KBS '여유만만' 에 바자 관련 방송 보도
- 10. 26 평가회
- 12. 1 회계감사 중앙일보에 공고

##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 4차〉

- 9. 28 4차 신청 안내문 홈페이지 공지
- 10. 17 6개 공부방 선정 및 홈페이지에 공지
- 10. 20 오리엔테이션

## 〈2006 '사랑의 떡국나누기'〉

- 11. 9 1차 준비위원회
- 11. 24 2차 준비위원회

## 기타

- 9. 29 홍보대사 김혜수, 김범수씨 위촉장 전달식 (문화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경향신문에 보도)



영화배우 김혜수 아나운서 김범수

- 9. 29 SBS '해결 돈이 보인다' 100회 특집 바자회 수익금 수령
- 10. 20 뉴욕생명과 사업 협력제휴 체결

## 〈북한어린이 돕기〉

2000년부터 계속돼 온 북한어린이를 위한 지원이 올해의 경우 북한에서 어린이들과 유치원에서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청한 물품을 직접 구입해 인천항에서 선적하여 북한 남포항으로 전달되었다.

지난 6월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을 준비해온 '사랑의 친구들' 은 7억 원이 넘는 의약품과 생필품, 의류 등의 물품을 보냄으로써 북한의 어린이들을 지원했다.

- 7. 4 북한 어린이 돕기 구체적 내용 합의를 위한 실무자 회의 개성에서
- 9. 9~10 지원물품 선적
- 10. 17~22 나라사랑 어머니회'의 방송자, 송인숙, 김숙자, 서진화, 박희양 씨와 '사랑의 친구들' 김순자, 성인숙 이사, 노윤화 차장이 지원 물품 모니터링 관련 북한 방문

## '2005 북한어린이 돕기' 후원업체

삼성(TV, 음향시설 비용등 기증), (주)오리온(초코파이 기증), 동원그룹(참치 통조림 기증), 동아제약(주)(박카스 기증), 한일약품(주)(화이트벤S 등 기증), 유한양행 (래피클에프 등 기증), 한국노바티스(Co-Diovan 등 기증), (주)한독약품 (하이비날 에스정 기증), 중외제약(5%포도당 등 기증), (주)한국 오티스(스양행케모신캡슐 기증), (주)종근당 (비타민 등 기증), 한울제약(주) (의약품 기증), OPUS(안경테 기증), (주)모나미(학용품세트 일부기증), 삼익약기(피아노 일부기증), 메가메디칼코 내시경 진단기 일부기증), (주)디피아(페인트 일부기증), LG화학(바닥장식제 일부기증), (주)쌍방울(아동내의, 아동양발 일부기증), 삼양식품(주)(라면 일부기증), CJ(주)(순살닭고기힘 일부기증)

## '사랑의 친구들' 새 사옥으로 사무실 이전

'사랑의 친구들' 이 지난 12월 14일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종로구 옥인동 47-483, 405㎡의 개인집을 리노베이션 한 새 사옥은 3층 규모에 2개의 회의실과 자료실, 사무실, 주방 외에도 사랑의 간식나누기 사업과 바자 재고품을 보관, 배분할 수 있는 창고와 작업 공간, 공부방 선생님들이나 회원들이 '사랑의 친구들'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 사옥 마련에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많은 분들을 위해 2006년 초에 따뜻한 집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주시고 '사랑의 친구들' 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인동 새 사무실 전경.

주소 : 종로구 옥인동 47-483  
전화 : (02)734-4945~7  
팩스 734-4948